

고전소설의 업승의 소설화 양상과 의미

김문희*

— <차 례> —

1. 머리말
2. 명사류 사서와 『명사』의 업승의 역사적 기록
3. 고전소설의 업승의 소설화 양상
4. 고전소설의 업승의 소설화 양상의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명사(明史)의 인물 업승에 주목하여 역사적 인물 업승에 대한 고전소설의 모방과 변형, 그리고 창안의 구체적 양상을 논의하고 업승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나라의 국가 주도로 편찬된 정사(正史)인 『명사』가 간행되기 이전에 조선에서는 사찬 역사가가 편찬한 명사인 『명사기사본말』, 『황명통기집요』, 『명기편년』 등이 수입되어 열독되었다. 이처럼 조선에 『명사』를 비롯한 다양한 역사서가 유통되고 향유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사의 인물 업승은 고전소설의 인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고전소설에서 업승은 공통적으로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의 기능을 지닌 인물로 구성된다.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란 업승이 충신인 남녀 주인공의 아버지와 갈등하고, 남녀 주인공과 갈등하는 전방위적인 갈등 유발자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사』의 업승의 자질을 그대로 모방하는 역사 유사화이다. 고전소설은 이러한 역사 유사화로 『명사』의 업승의 자질을 모방하여 완벽하고 총체적인 간신의 모습과 충신과 간신의 갈등, 처첩 갈등을 손쉽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란 업승이 악인을 결집하고 연합하는 인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소설은 업

* 경기대 진성애교양대학 조교수

승을 중심으로 명사의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악인들이 연합하는 서사를 만들고 한편으로 주인공을 중심으로 명사의 역사적 인물이 연합하는 서사도 함께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선악의 힘이 대칭을 이루어 긴장의 서사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명사를 모방하면서도 변형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소설에서는 여성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엄승의 고난을 피해 길을 떠나면서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을 구성하는 소설적 창안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연애에 대한 낭만적 인식이 개입되어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연애를 상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허구적 상상력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설적 창안을 이룬 것이다.

□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 엄승, 소설화, 명사의 모방, 명사의 변형, 소설적 창안

1. 머리말

명사(明史)의 역사적 인물 엄승(嚴嵩)은 명나라 세종이 통치했던 가정 연간의 간신으로 명사에서는 6대 간신 중 한사람으로 지칭된 인물이다. 엄승은 우리 고전소설에서도 간신으로 등장하는데, 엄승이 등장하는 고전소설은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 등이다. 이 소설들에서 엄승은 서사 전체에서 지속적인 악인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서사 일부분에서 단속적인 악인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명사의 인물 엄승이 우리 고전소설에서 어떻게 소설화되고 있으며, 여러 고전소설에서 계속 소설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고전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명사의 인물 엄승에 주목하여 고전소설에서 명사의 역사적 인물 엄승이 소설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고전소설에서 엄승이 소설화되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창선감의록>과 <낙천등운>의 명사의 수용과 차용을 논의하면서 엄승을 언급한 경우들이 있다. 이른 시기에 문선규는 <창선감의

록》을 연구하면서 〈창선감의록〉의 구성법으로 명사(明史)의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부연 과장하고 거기다 가상적인 인물과 사건을 덧붙여 꾸미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장훈은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중국 실존인물을 연구하면서 엄송을 다루었다. 엄송은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엄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설화한 것이며, 고전소설사에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은 실제 중국 인물을 작품 속의 인물로 등장시킨 효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²⁾고 하였다. 임치균은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을 고찰하면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은 엄송과 그 당시의 실존 인물들을 대거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허구적 인물을 강조하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을 끌어들이고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 필침으로써 작품의 내용이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³⁾이라고 논의하였다.

〈낙천등운〉의 연구에서도 명사 수용을 논의하면서 역사적 인물 엄송을 다루거나 언급하였다. 조희웅은 낙선재본 번역소설을 연구하는 가운데 〈낙천등운〉에 엄송, 왕석작, 왕예, 왕세정, 양계성 등 중국 정사의 실재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소설과 사실이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낙천등운〉이 번역일 가능성이 많다⁴⁾고 하였다. 구경순은 〈낙천등운〉을 연구하면서 소재론적 측면에서 인물, 사건 등을 다루고 정사에서 선택하여 작품화한 인물과 사실을 비교하여 그 작품화 과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소설 속 엄송과 명사의 유사한 점을 비교하는 작업⁵⁾을 하였다. 이지영은 〈낙천등운〉의 텍스트의 특징과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논의하면서 작품 서두,

1) 문선규, 「창선감의록고」, 『어문학』 9, 한국어문학회, 1963, 16~18쪽.

2) 장훈,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 실존 인물 연구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0, 83~84쪽.

3) 임치균,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010, 98~101쪽.

4) 조희웅,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259쪽.

5) 구희경, 「낙천등운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1, 4~32쪽.

대동에 마시(馬市)를 둘러싼 양계성과 엄송의 다툼과 좌천, 양계성의 재등용, 양계성의 엄송 탄핵 사건과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아 〈낙천등운〉은 명나라 역사에 정통한 작가의 소작(所作)⁶⁾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낙천등운〉의 명사 차용을 지적하고 명사와 고전소설의 엄송을 비교하고 유사점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엄송이 고전소설에서 소설화되는 구체적 양상과 의미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엄송의 역사를 소설화할 때 고전소설이 역사를 어떻게 모방하고 변형하는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엄송이 소설 속 중요한 인물로 기능하는 고전소설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⁷⁾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명사』의 역사적 인물 엄송의 모방과 변형 그리고 창안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고, 고전소설의 엄송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를 논의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2. 명사류 사서와 『명사』의 엄송의 역사적 기록

1) 명사류 사서의 엄송의 역사적 기록

엄송에 대한 기록은 청대에 간행한 정사(正史)인 『명사(明史)』에 상세

6) 이지영, 「〈낙천등운〉의 텍스트 특징과 형성 배경에 대한 고찰」,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72~73쪽.

7)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래종 역주, 『창선감의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이래종 옮김, 『사씨남정기』, 태학사, 2004; 김기동 편, 『일락정기』(필사본 고소설전집5), 아세아문화사, 1980; 임치균, 이민희, 이지영 옮김, 『낙천등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명사(明史)』는 95년의 시간이 걸려 1739년(건륭 4년)에 완성되었고 『명사(明史)』가 조선에 수입된 것은 이듬해인 1740년이다. 조선에서는 『명사(明史)』가 유입되기 전에도 명사류(明史類) 사서가 유입되어 향유되고 있었다. 국가 주도로 편찬된 청의 『명사』 출간 이전인 16세기~18세기에 조선에 유입되고 널리 읽힌 명사류(明史類)는 『명사기사본말(明史記事本末)』, 『황명통기집요(皇明通紀輯要)』, 『명기편년(明紀編年)』 등이다.

먼저 『명사기사본말』은 청나라의 곡용태가 1658년에 완성한 80권의 사찬역사서이다. <사씨남정기>의 창작 시기는 17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고 <창선감의록>의 창작 시기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의 작자는 『명사』가 간행되기 이전에 다른 역사서를 통해 엄승의 기록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 임치균은 『명사』 이전에 출판된 『명사기사본말』에 주목하였는데, 이의현, 이기지, 이진명 등이 1720~1721년에 사행을 갔다가 『명사기사본말』을 사왔다는 기록을 통해 조선 선비들이 『명사기사본말』의 엄승을 참고했을 수도 있다⁸⁾고 보았다.

『명사기사본말』에서 엄승의 역사는 권54 <엄승용사(嚴嵩用事)>에 기록되어 있다.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는 사건별로 제목을 앞에 두고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한데 모아 서술하는 것으로 일의 원인과 발단, 전개 과정, 후에 미친 영향관계를 자세하게 기록⁹⁾하는 역사서술 방식인데, <엄승용사>는 이와 같은 기사본말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엄승용사>에서는 엄승의 출사, 엄승이 세종의 총애를 받는 계기, 엄승이 충신과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 엄세번의 득세와 비리, 엄승과 엄세번의 악행과 비리를 상소하는 신하들과

8) 임치균(2010), 앞의 논문, 100~101쪽.

9) 이웅백, 김원경, 김선풍, “기사본말체”, 『국어국문학자료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 (2021. 04. 10.)

엄송의 갈등, 엄송과 엄세번의 몰락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명사기사본말』의 〈엄송용사〉는 18세기 초반 조선인들이 엄송의 역사를 풀 버전으로 접할 수 있는 명사 텍스트였을 것이다.

『황명통기집요(皇明通紀輯要)』는 명나라 진건의 『황명통기(皇明通紀)』를 증보한 명사¹⁰⁾이다. 당시 진건의 사찬역사서인 『황명통기』는 오류를 전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자 명말 청초의 역사가들이 『황명통기』를 증보(增補)하여 『황명통기집요(皇明通紀輯要)』와 같은 다양한 증보본을 간행하였다. 조선에서도 숙종 25년(1699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진건 저(著), 송광 원정(原訂), 마진윤 증정(增訂)의 판본인 『황명통기집요(皇明通紀輯要)』를 간행¹¹⁾하였다. 영조 47년(1771년)에는 숙종대에 간행된 『황명통기집요』를 저본으로 하여 영조본 『황명통기집요』를 간행하게 된다.

엄송의 역사는 『황명통기집요』의 15권~17권에 기록되어 있다. 『황명통기집요』는 시대순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통기류(通紀類)의 기본 체제대로 세종 연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시대순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엄송의 역사가 원인, 과정, 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엄송과 엄세번의 주요 행적과 엄송의 부침이 기록되어 있어서 엄송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황명통기집요』는 중요한 책이었다.

일례로 숙종과 영조는 『황명통기집요』를 건강용 서적으로 이용하였다. 숙종은 1700년(숙종 26년)부터 1701년(숙종 27년)동안 입시관료와 함께 『황명통기집요』를 5회나 건강했는데, 이때 『황명통기집요』 13권(무종의황제), 14권(세종숙황제), 15권(세종숙황제), 16권(세종숙황제), 17권(세종숙

10) 『황명통기(皇明通紀)』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김대경, 「조선후기 『皇明通紀輯要』의 간행과 유통」,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8, 5~68쪽.

11) 김대경(2018), 위의 논문, 13~16쪽.

황제, 목종장황제)을 진강하였다는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나온다.¹²⁾ 영조는 1727년(영조 3년)동안 28회의 진강을 통해 『황명통기집요』의 1권에서 24권 전권을 읽고 논평하였다. 영조 3년 1727년 7월 13일자 진강에서는 『황명통기집요』 세종하(世宗下)를 읽는 장면¹³⁾이 나온다. 이처럼 『황명통기집요』는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가 읽고 사대부, 문인들이 폭넓게 읽은 대중적인 명사(明史)가 되었고 이 때문에 엄송의 역사도 널리 회자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널리 읽힌 또 하나의 명사는 1660년에 청나라의 왕여남(王汝南)에 의해 편찬된 『명기편년(明紀編年)』이다. 『명기편년』은 명나라 종성(1575년~1625년)이 짓고 이것을 왕여남이 증보한 명대의 편년체 역사서¹⁴⁾이다. 『명기편년』의 권1에서 권8까지는 종성이 지은 것이고 권9에서 권12까지는 왕여남이 증보한 것이다. 『명기편년』이 조선에 유입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697년(숙종 23년)에 행도승지 이현석의 『소대전칙』, 『명정통종』, 『황명통기』, 『대정기』, 『명기편년』, 『기사본말』 등의 서적을 간행할 것을 건의한 점¹⁵⁾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에는 조선에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기편년』은 1728년(영조 4년) 2월 24일에 소대에서 강론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¹⁶⁾으로 보아 왕과 신하들도 『명기편년』을 열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기편년』의 구성은 전체 12권으로 이중 엄송의 역사는 권6에 기록되어 있다. 『명기편년』은 년, 월에 따라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사서인데 『명기편년』 권6에는 가정 20년부터 가정 44년까지 엄송의 입사와 엄송

12) 김대경(2018), 위의 논문, 42~43쪽.

13) 『승정원일기』, 영조 3년 7월 13일.

14) 『명기편년』에 대한 설명과 간행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장원연, 『조선 후기 금속 활자인쇄 교정의 실증적 연구-戊申字本 『명기편년』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4, 한국서지학회, 2018, 241~244쪽.

15) 장원연(2018), 위의 논문, 243쪽.

16) 『영조실록』, 영조 4년 2월 24일. 장원영(2018), 위의 논문, 243쪽 재인용.

의 비리와 악행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명기편년』은 양계성, 서학시 등이 엄송의 악행과 비리를 탄핵하는 상소 내용과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엄송의 무리인 엄세번, 조문화, 호종헌, 언무경의 비리와 이들의 최후가 기술되어 있다. 『명기편년』만으로도 엄송과 엄송 무리의 악행과 비리, 이에 반대하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축출되던 가정 연간의 조정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청나라의 국가 주도의 정사(正史) 『명사』가 간행되기 이전에도 조선에는 사찬 역사가의 명사류인 『명사기사본말』, 『황명통기집요』, 『명기편년』 등이 수입되어 열독되었다. 조선에서는 엄송에 대한 상세한 기록에서부터 축약적 기록까지 여러 버전의 역사서가 유통되었고 이러한 역사서를 기반으로 엄송의 역사는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에 허구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명사』의 엄송의 역사적 기록

『명사』는 청(淸)나라의 장정옥과 많은 학자들이 칙령을 받들어 만든 중국의 정사(正史)로 1739년(건륭 4년)에 완성되었고 『명사』가 조선에 유입된 것은 1740년(영조 16년)이다. 『명사』가 조선에 들어오자 왕과 신하, 사대부, 선비들을 중심으로 『명사』는 더욱 폭넓게 읽혔다. 정조대에 이르러 『명사』는 역사서를 편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서가 되기도 하였고 18~19세기 학자들의 문집에도 『명사』를 읽었다는 기록과 『명사』에 관한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명사』의 내용과 분량은 목록 4권, 본기(本紀) 24권, 지(志) 75권, 표(表) 13권, 열전(列傳) 220권 총 336권이나 된다. 특히 『명사』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전체 역사서로 사찬 역사가가 편찬한 엄송의 기록을 집대성한 관찬 역사서로 엄송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중 엄송은 『명사』 권318 열전 제196의 <간신>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명사류보다

엄송의 행적에 집중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엄송의 행적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엄세번, 조문화, 언무경에 대한 행적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서 보다 일목요연하게 엄송과 그 측근들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명사』 권318 열전 제196의 〈엄송〉의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적 인물 엄송을 살펴볼 것이다. 『명사』의 〈엄송〉의 내용은 2546자의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전문을 실지 못하지만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고전소설의 엄송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명사』의 엄송의 기록 중에서 핵심적 사건을 요약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엄송의 자는 유중(惟中), 분의(分宜)사람이다. 키가 크고 몸이 비쩍 말랐으며 미간이 넓고, 음성은 매우 컸다. 가정 7년 예부 우시랑을 역임하여 세종이 현릉에 제사지내는 일을 명하자 그것을 받들고 돌아와 그날의 상서로움을 말하고 자신이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 묘지의 비석에 새길 수 있도록 청해서 황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엄송은 이부 좌시랑으로 옮기고 남경 예부 상서로 승진하고 이부로 벼슬이 바뀌었다.

황제가 친부 흥헌왕을 명당에 모시고 상제로 제사지내려고 하고 흥헌왕을 종(宗)으로 칭하고 태묘에 모시고자 하였다. 엄송과 여러 신하들이 그것을 막자 황제가 좋아하지 않았다. 황제는 〈명당혹문(明堂或問)〉이란 글을 지어 조정 신하에게 보여주었다. 엄송은 황공하여 이전에 했던 말을 모두 바꾸고 조목대로 예의를 갖추어 매우 잘 준비하였다. 의례가 끝나니 황제는 엄송에게 금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엄송은 더욱 공무를 아첨하며 황제의 마음에 들게 하였다. 황제가 흥헌왕을 상고황제라는 존호와 성호를 더하여 제사를 지내자 엄송은 경사스러운 구름을 보았다는 것을 상주하고 여러 신하들과 조정에서 축하연을 가질 수 있도록 청하였다. 또 〈경운부(慶雲賦)〉와 〈대례고성송(大禮告成頌)〉을 짓고 이것을 상주하니 황제가 기뻐하여 사관(史官) 직책을 주고 이우고 태자태보(太子太保)를 더하여 주었다.

엄송은 돌아가 날마다 교만하였다. 제종(諸宗)들이 벼슬을 구걸하는 청을 하

였고, 엄승은 뇌물을 거둬들였다. 아들 엄세번이 또 수차례 사람을 중간에 내세워 집안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게 하였다. 엄승은 매번 논핵을 당할 때마다 빨리 황제에게 돌아가 정성을 다하면 일은 번번이 해결되었다. 황제는 간혹 정사를 엄승에게 자문했는데 엄승은 조목조목 들어 대답하고 기이한 것이 없게 바르게 하니 황제가 반드시 일이 그러하기에 칭찬하며 상을 주고 말하는 자의 아뢰는 것을 그치게 하고자 하였다.

엄승은 다른 재주와 책략이 없었다. 오직 황제에게 아첨하고자 하였으며, 권력을 빼앗고 이익만을 구하였다. 엄승은 여러 사건을 만들어내어 황제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을 해쳐서 그의 이기심을 달성코자 하였다. 장경, 이천룡, 왕여의 죽음 모두가 엄승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앞뒤로 엄승, 엄세번을 탄핵했던 사유, 섭경, 동한신, 조급, 왕종무, 하유백, 왕엽, 진개, 여여진, 심련, 서학시, 양계성, 주부, 오시래, 장충, 동전책 등은 모두 쫓겨났다. 섭경, 심련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양계성은 장경의 죄를 논하는 소(疏) 뒤에 이름을 넣어 죽였다. 엄승이 좋아하지 않는 자는 승진이나 관직, 고찰이라는 명목을 빌려 쫓겨난 자가 매우 많았으나, 모두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황제가 18년 장성태후의 장례를 치른 후부터 조정의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20년 관비의 변란이 일어난 후부터 서원 만수궁으로 거처를 옮긴 후 대내(大內)에는 들어오지 않아, 대신들이 황제를 알현하기 매우 어려웠다. 오직 엄승만이 홀로 알현과 문의를 담당하여, 황제의 문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달되었다. 비록 같은 지위의 관리도 황제의 말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엄승이 자기 멋대로 하게 되었다. 엄승은 모함하는 자를 밀어낼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선함을 칭찬하고, 은밀한 말로 그를 공격하거나 혹은 황제의 수치심과 꺼리는 것을 건드렸다. 이로써 황제의 즐거움과 노여움을 바꾸어 놓음에 대체로 실패함이 없었다. 사대부들이 엄승에게 모여들어 의지하였다. 당시에 문선낭중이라 칭해지던 만채와 직방낭중이었던 방상 등의 사람들이 모두 문무 관리자였다. 상서 오봉, 구양필진, 고요, 허론 등은 모두가 엄승을 두려워하며 섬겼다.

엄승이 권력을 잡은 지 오래 되자,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골고루 요지에 배치하게 되었다. 황제 또한 점점 그를 싫증내면서 점차 서계를 가까이 하였다. 마침 서계와 깊이 사귀던 오시래, 장충, 동전책 등이 각기 엄승을 평가하는 상소를

올리자, 엄송이 조용히 주동자를 찾아 옥에 가두고는 모두 치조하여 가만두지 않았다. 황제가 이에 묻지 않고 엄송을 위로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계가 이로 인하여 황제와 엄송 사이의 틈을 얻어 엄송을 무너지게 하였다.

마침 만수궁에 화재가 일어나자 엄송은 잠시 남성으로 궁을 옮길 것을 청하였다. 남성은 영종이 태상황일 때에 머물던 곳이었으므로 황제는 기뻐하지 않았다. 서계가 만수궁을 지어 황제의 뜻에 깊이 부합하자 황제가 서계를 더욱 가까이 하였다. 고문(顧問)하는 대부분이 엄송에게 이르지 않았고, 엄송에게 이르는 것은 제사에 관한 것뿐이었다. 엄송이 두려워 술 상을 차려놓고 서계를 불러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절하게 하고는 술잔을 들고서 “엄송은 조만간 죽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공께서 먹여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자, 서계가 사양하며 감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황제가 방사(方士)였던 남도행의 말을 들어 엄송을 제거하려는 뜻을 가졌다. 어사 추응룡이 환관의 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황제의 뜻을 알고서는 상소하여 엄송 부자의 불법을 상세히 평하였다. 추응룡이 말하기를 “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의 머리를 잘라 엄송과 엄세번에게 죄를 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형부에서는 상소를 올려 엄세번과 그의 아들 금의위 엄곡, 엄홍과 문객 나용문을 변경의 먼 지방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황제는 조서대로 따랐으나 다만 엄홍만을 용서하여 민(民)으로 엄송을 받들게 하였다.

그 다음 해에 남경어사 임윤이 아뢰기를, “강양(江洋)의 대도(巨盜)들이 나용문, 엄세번 집으로 많이 도망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용문은 깊은 산에 거주하면서 수레를 타고 망포를 거치며 험준한 땅에서 반역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세번이 죄를 얻은 후에 나용문과 매일 정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느리는 무리가 사천인에 달하며, 길에서는 모두가 이 두 사람이 왜인들과 한 통속이라고 말하니 변이 생기면 또한 예측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임윤에게 명령하여 형법부에서 참수하고 모두가 법에 따라 죽이되 엄송은 파면하고 여러 손자들은 평민으로 만들게 하였다. 엄송이 정권을 도적질한 지 20년 만에 사악한 이들을 믿고 천하에 독을 퍼뜨렸으니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간신이라 하였다. 엄세번을 대역죄에 처하게 한 것은 곧 서계의 생각이었다. 2

년 후 엄송은 늙고 병들어 묘사(墓舍)에서 빌어먹다 죽었다.

(『명사』 권318 열전 제196 〈엄송〉¹⁷⁾)

이처럼 엄송은 거의 20년 동안 세종의 측근에서 세종에게 아부하고 환심을 사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엄송은 세종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고 꺼리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권력을 얻었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아들 엄세번과 자신의 당을 만들어 자신을 미워하거나 탄핵한 사람들은 귀양보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엄송이 권력을 잡은 지 오래되자 세종은 점차 엄송에게 싫증을 내면서 서계를 가까이하게 되고 추응룡과 임윤 등이 엄송과 엄세번의 비리와 죄를 탄핵하자 드디어 황제는 엄세번을 참수하고 엄송은 파면하였으며 엄송의 손자들은 평민으로 전락시킨다. 결국 엄송은 늙고 병들어 집안의 묘 주변에서 빌어먹다 죽게 된다.

이와 같이 『명사』의 〈엄송〉의 기록은 고전소설의 간신을 디자인하고 악행의 서사를 구성하는 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3. 고전소설의 엄송의 소설화 양상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에 나타난 엄송의 소설화 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엄송의 서사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에서 엄송은 유사한 서사적 기능과 인물 자질로 소설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엄송을 매개로 하여 만들어지는 서사 구성

17)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明史」 권318,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ihpc/hanjiquery>.

도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작품에서 엄송은 공히 주인공의 고난을 강화하는 서사적 인물로 기능하는데, 여기서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와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로서의 공통된 자질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엄송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면서 새로운 사건이 매개적으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이 그것이다. 이장에서는 고전소설의 엄송의 소설화 양상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인물 구성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유소인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로서의 자질과 사건 구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공유소인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을 중심으로 엄송이 소설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로서의 엄송의 소설화 양상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에서 엄송은 충신과 충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가하는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로 구성된다.

우선 엄송은 〈창선감의록〉에서부터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의 자질이 드러난다. 〈창선감의록〉에서는 화진의 아버지 화옥 대에서부터 화옥과 엄송의 갈등이 시작된다. 엄송이 정권을 잡고 국사가 혼란스러워지자 화옥은 이런 시국을 안타까워하며 사직하는 표를 올린다. 엄송은 평소 화옥을 꺼렸기 때문에 천자를 움직여 화옥을 조정에서 제거한다.

화옥과 엄송의 갈등은 화옥이 사직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소거되는 듯하지만 화진이 장원 급제후 엄송을 찾아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화진과 엄송의 갈등이 시작된다. 화진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엄송은 화씨 가문의 악인인 조녀와 범한이 심씨 살해 미수 사건을 만들어 엄송에게 뇌물을 주자 엄송은 화진을 심씨 살해범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조정에서 허춘해와 서계가 화진을 변론해서 화진은 겨우 목숨을 구하고 유배를 가게 된다. 이처럼 엄송은 화옥과의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화진을 삭탈관직시키고, 패륜의 죄를 씌워 유배

지로 보내고 <창선감의록>의 가정 내외의 갈등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엄승은 또 다른 충신 남표와 남표의 딸 남채봉의 고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충신 남표는 엄승이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파는 비리를 알고 천자에게 고하는 상소를 올려 엄승을 탄핵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표와 엄승의 갈등은 본격화된다.

- ① 당시 엄승이 엄밀하게 위병(威柄)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구란(仇鸞)에게서 삼천금을 받은 뒤 그를 천거해 대장으로 삼게했다. 그리고 천자의 좌우 근신들을 매수해 그 동정을 살피게 하는 한편 조문화(趙文華) 등으로 하여금 멋대로 재물을 거둬들이게 했다. 이윽고 남공은 우국충정을 누를 수 없어 엄승의 대죄(大罪) 13가지를 나열한 소(疏)를 닦아 천자에게 올리기로 작정했다. (〈창선감의록〉 70~71쪽)

위의 예문은 남표가 엄승이 구란에게 뇌물을 받고 구란을 대장으로 삼은 일과 엄승의 측근 조문화가 여기저기서 재물을 거둬들이는 비리를 적어 엄승의 대죄 13가지를 천자에게 상소하려고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명사』 권209 <양계성>에서는 가정 연간 32년에 병부 원외랑 양계성이 엄승의 10가지 죄행과 5가지 간악한 행위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양계성이 상소한 10가지 죄행은 엄승이 권력을 남용해 조정의 법을 파괴한 것, 임금의 공로를 자기가 차지한 것, 아들 엄세번과 의자(義子) 조문화를 중용해 조정의 대권을 쥐고 뇌물을 받은 것, 구란에게 뇌물을 받고 구란을 대장군으로 추천하고 구란이 적과 내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것, 장손 엄효충의 공적을 허위로 보고해 관직을 올려준 것, 간신들과 함께 자기 당을 만든 것, 군기를 어겨 엄담의 침범을 중용한 것, 정직한 대신을 파직시킨 것¹⁸⁾ 등이다. <창선감의록>에서는 『명사』의 양계

18) 『명사』 권209 열전 제97, <양계성>.

성이 올린 상소를 차용하여 남표가 엄승의 대죄 13가지를 상소하는 것으로 변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 역사에서도 상소문을 받아본 세종은 분노하고 엄승의 무리들이 세종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여 세종은 양계성에게 형장을 내리고 옥에 가두게 한다. <창선감의록>에서도 소장을 받아본 천자는 남표가 올린 상소가 엄승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남표를 악주로 유배보낸다.

남표의 가족이 악주로 떠나자 엄승은 자객을 보내 남표 일가족을 살해하려고 한다. 남표와 아내는 강물에 뛰어들고 남채봉은 시녀 계앵과 함께 구사일생으로 강가에 버려진다. 남채봉은 선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남표의 친구 윤혁의 집으로 가서 의탁하게 된다.

<사씨남정기>에서도 엄승은 <창선감의록>과 유사한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로 소설화된다. 유희 대에서부터 엄승과 유희의 갈등이 드러난다. 유희는 문장과 재망으로 당대에 이름을 날렸지만 당대의 권력자 태학사 엄승과 뜻이 맞지 않아 천자에게 사직을 청하고 은퇴하여 엄승과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엄승과 유희의 잠복된 갈등은 아들 유연수에게서 표면화된다. 유연수가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어 자주 소(疏)를 올려 조정의 득실을 논하자 엄승은 유연수의 이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엄승은 유연수의 관직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유연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이런 와중에 유연수는 해서(海瑞)를 구하려고 상소를 올리고 이것을 계기로 엄승과 유연수의 대립이 격화된다.

- ㉔ 그 무렵 엄승상은 천자를 보좌하면서 신선과 귀신을 숭상하여 기도를 일삼고 있었다. 간의대부(諫議大夫) 해서(海瑞)가 엄승상의 잘못을 탄핵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크게 노하여 해간의(海諫議)를 군적(軍籍)에 편입시키라고 명하였다. 유한림은 소를 올려 힘써 해서를 구하려 하였다. 천자는

다시 조서를 내려 한림을 엄하게 꾸짖었다. 아울러 마침내 법을 제정하였다. '차후로 대소 신료 가운데 감히 기도하는 일을 거론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하였던 것이다. (〈사씨남정기〉 114쪽)

천지는 해서를 구하기 위해 올린 유연수의 상소를 보고 유연수를 엄하게 꾸짖고 신하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거론하는 자는 참형에 처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위의 사건은 가정 45년 도교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 세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해서와 관련된 것이다. 『명사』 권326 열전 제114 〈해서〉에 의하면 세종은 도교에 깊이 빠져 조정에 나가지도 않았고 깊은 서원(西苑)에 있으면서 도교의 제사인 재초(齋醮)에 몰두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호부주사인 해서는 세종이 도교에 빠져 조정 정치를 황폐하게 만들고 국사를 돌보지 않았기에 나라의 기강과 법도가 무너지고 탐관오리가 활개치고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 살기 어렵다는 직언과 세종이 잘못을 바로 잡고 올바른 정사에 매진할 것을 재촉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를 본 세종은 매우 분노하여 해서를 죽이려고 하다가 환관에게서 해서가 이 상소를 올리기 전에 미리 관을 사두고 가족과 이별하고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을 듣고 해서의 충직에 감동하게 된다. 그래서 해서를 죽이지는 않고 옥에 가두는 선에서 처리하였다¹⁹⁾는 기록이 있다.

〈사씨남정기〉의 위의 사건은 『명사』에서 기반한 것으로 도교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 세종의 잘못을 직간한 해서의 상소를 차용한 것이지만 〈사씨남정기〉에서는 해서가 엄승을 탄핵한 것으로 변용하고 있다. 『명사』에 기록된 해서의 상소는 이미 엄승이 재상에서 파직되고 엄세번에게 극형이 내려진 후에 쓰여진 것으로 해서가 비판한 대상은 엄승이 아니라 도교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 세종이다. 그러나 〈사씨남정기〉에서는 해서의 상

19) 『명사』 권326 열전 제114 〈해서〉 참조.

소를 엄송의 잘못을 탄핵한 것으로 변형하고 있다. 이런 해서를 구하기 위해 유연수는 소를 올렸으나 이것을 계기로 유연수는 엄송이 가하는 본격적인 고난을 맞게 되는 것이다.

엄송은 유씨 가문 내부의 악인인 교씨와 동청이 바친 유연의 시를 빌미로 유연수를 조정에서 축출하게 된다. 동청은 유연수가 시시를 기롱하는 시를 적은 것을 발견하고 엄송에게 가지고 가고 엄송은 이 시를 세종에게 보여주고 세종의 화를 자극한다. 세종은 유연수를 금위옥에 하옥하고 죽이겠다고 작정한다. 태학사 서계가 태평시대의 천자가 신하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극간하여 유연수는 겨우 목숨을 구하고 행주로 유배가게 된다.

이처럼 〈사씨남정기〉에서도 엄송은 유희와 같등하고 그 아들 유연수와도 같등하며 주인공에게 고난을 주는 같등의 복합적 유발자로 기능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락정기〉는 선행 연구에서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의 영향 아래 창작된 모방작이라는 평가²⁰⁾가 있듯이 엄송의 서사적 기능과 새로운 사건의 구성에서도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와 유사한 면이 많다. 엄송이 충신 서필과 그의 아들 서몽상과 서몽상의 아내 권채운의 고난을 기증시키는 인물로 기능하는 것은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와 유사하다.

서필은 황제가 아끼는 조정의 신하로 황제는 서필에게 옛날과 지금의 치란을 묻자 서필은 현재 국가가 엄송과 언무경 때문에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직언하고 관직을 사임하고 귀향한다. 서필과 엄송의 대립과 같등은 서필이 사직하고 조정을 떠나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서몽상이 장원급제하고 또 문연각 편수가 되자 엄송은 서몽상을 해칠

20)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583~584쪽; 신동익, 「일락정기 연구 - 선행 작품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3, 276~288쪽; 탁원정, 「일락정기 연구 구성방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6, 47~63쪽; 이승복, 「〈일락정기〉의 전대소설 수용과 작자의식」, 『관악어문연구』 2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8, 72~81쪽.

기회를 노리며 새로운 갈등을 만든다. 엄승의 문객 조평은 서몽상의 첩 위씨와 사통하고 서몽상과 처 권채운을 축출하지는 계략을 세운다. 조평은 엄승에게 서몽상이 부유한 상인을 살해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 자기 소유의 논밭을 넓히고 자기 어머니를 구박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았으며, 임신한 노비를 때려죽였다는 죄명을 만들어 엄승에게 고하고 엄승은 경연에 나가 서몽상의 죄를 상소한다. 형부상서 사위가 서몽상의 인물됨을 들어 서몽상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변론하자 천지는 사위의 말을 듣고 서몽상을 악주부 파릉현으로 유배보낸다.

엄승은 서몽상의 처 권채운의 고난을 가중시키기며 〈일락정기〉의 갈등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권채운의 아버지 권상서가 살아있었을 때 엄승은 자신의 아들과 권채운을 혼인시키고 싶어 청혼했으나 권상서가 거절하자 이를 못마땅해한다. 그러나 권상서가 죽자 권상서의 동생 권시랑에게 다시 청혼을 하지만 권시랑 역시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한다. 엄승은 권시랑에게 공금 횡령의 죄목을 씌워 감옥에 가두고 권채운에게 권시랑을 석방시키고 싶다면 혼인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한다. 권채운은 피를 내어 권시랑을 석방시키고 위기를 모면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엄승은 권채운에게 또 다른 고난을 가한다. 위씨와 조평이 권채운에게 누명을 씌우고 엄승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엄승은 자신을 속이고 도망간 권채운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천자를 움직여 권채운을 잡아들여 옥에 가둔다. 이날 밤 권채운은 백련암의 혜원스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백련암에서 아들을 해산하고 또 한번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다. 〈일락정기〉에서도 엄승은 욕심과 악행으로 권채운에게 고통을 가하는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낙천등운〉에서 엄승은 작품 전반부에서 왕석작과 동예아에게 고난을 가하고 작품 속 갈등을 만드는 인물로 구성된다.

주인공 왕석작은 가정 2년에 왕도와 양씨 부인의 만득자로 태어나는데

그 당시 조정은 엄송이 권력을 잡고 충신을 죽이거나 귀양보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왕도는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해서 지내다 병들어 죽게 되고 아들 왕석작을 처남 양계성에게 맡기는데 〈낙천등운〉에서는 엄송과 양계성의 갈등으로 구성된다. 강직한 성품을 지닌 양계성은 엄송 부자의 죄를 낱알이 적어 천자에게 상소한다.

③ 엄송은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조정의 기강을 제멋대로 뒤흔들었고, 특히 엄송의 아들 엄세번은 더욱 흉포하고 탐학해 권세만 믿고 온갖 교태와 추행을 일삼았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눈살만 찌푸릴 뿐 그의 기세에 놀려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양계성이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다시 상소를 올렸다. 그는 상소문에서 나라를 그르치고 임금을 욕되게 하는 엄송 부자의 죄 열 가지를 낱알이 아뢰었다. (〈낙천등운〉, 17쪽)

이 상소문을 읽은 천자는 노발대발했고 엄송은 형부에 힘을 써서 양계성에게 교수형이 내리도록 하고 양계성은 3년을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된다.

〈낙천등운〉의 양계성은 『명사』의 인물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가정 연간 32년에 병부 원외랑 양계성은 엄송의 10가지 죄와 5가지 간악한 행위를 탄핵하는 상주문을 올리고 세종과 엄송의 분노를 사 금위옥에 갇히고 가정 34년에 처형당한다.²¹⁾ 〈낙천등운〉의 양계성은 『명사』의 양계성의 행적을 기반하여 이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소설화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엄송은 왕석작의 외삼촌인 양계성과 대립 갈등하고 엄송에 의한 왕석작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외삼촌의 죽음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진 왕석작은 엄송의 화를 피해 청주에서 후선과 초정의 양아들로 지내게 된다. 거기서 동전책의 딸 동예아를 만나고 동예아와 혼인을 한다. 그러나 초정이 동예아를 창기로

21) 『명사』 권209 열전 제97, 〈양계성〉 참조.

만들려고 하자 왕석작과 동예아는 청루를 빠져나와 정처없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다 우연히 관가의 지현인 왕치를 만나 숙질의 인연을 맺고 왕지현 집에 의탁해 공부에 매진하고 급제한 후 조정에 나가게 된다.

그러나 왕석작의 재주와 인물을 탐낸 엄승은 왕지현에게 자신의 손녀와 왕석작의 혼인을 청한다. 왕석작이 이를 거절하자 엄승은 왕석작을 협박하기 위해 천자의 힘을 빌려 왕지현은 영남지현으로 임명하여 집을 떠나게 하고 왕석작을 군무도어사로 임명하여 오랑캐를 평정하게 한다. 엄승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늑흔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왕석작과 왕지현에게 고난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낙천등운〉의 여성 주인공 동예아의 고난도 엄승에 의해 비롯된다. 동예아는 충직한 선비 동전책의 딸로 동전책이 엄승과 그 무리의 죄상을 밝히는 상소를 천자에게 올렸다가 도리어 죄를 입고 변방에 귀양가게 되면서 엄승과 동전책의 갈등이 시작된다.

동전책은 『명사』의 인물로 형부주사가 된 가정 37년에 대학사 엄승에게 항거하는 탄핵 상소를 썼다. 동전책은 엄승의 6대 죄상을 적고 난 후 엄승이 권력을 휘두르고 생사여탈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엄세번도 무뢰한 자식으로 엄승의 위엄을 끼고 악을 도우며 부자가 방자하고 흉악하니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종에게 권간(權奸)을 물리치라고 상주하였다. 이런 상소로 동전책은 세종의 분노를 사서 남녕으로 유배가게 된다.²²⁾ 〈낙천등운〉은 엄승과 엄세번의 죄상을 상소했다 유배가는 『명사』의 동전책을 동예아의 아버지로 설정하여 엄승과 동전책의 대립과 갈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전책은 어린 동예아를 귀양지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동생인 동전책에게 동예아를 부탁하고 귀양지로 향하지만 허랑방탕한 동전책은 동예아의

22) 『명사』 권210 열전 제98, 〈동전책〉 참조.

고난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낙천등운〉에서도 엄송은 왕석작의 외삼촌 양계성과 동예아의 아버지 동전책과 갈등하고 충신의 자녀에게도 고난을 가하며 소설속 갈등을 첨예하게 하는 복합적 갈등의 축조자로 구성되어 〈낙천등운〉의 전반부를 추동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로서의 엄송의 소설화 양상

고전소설에서 엄송은 소설의 갈등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기능뿐만 아니라 엄송을 중심으로 악인이 연합하는 서사를 만들기도 한다. 엄송은 악인을 모으고 연합하는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로 구성된다.

〈창선감의록〉에서 엄송은 아들인 엄세번과 측근인 조문화, 언무경과 연합하고 화부내 악인인 화춘, 조녀, 범한, 장평이 엄송의 무리들과 공모하여 화진, 남채봉, 윤화옥에게 고난을 가한다. 〈창선감의록〉의 엄세번, 조문화, 언무경이 『명사』의 인물들을 차용한 것이라면 화춘, 조녀, 범한, 장평은 허구적인 인물이다. 『명사』의 역사적 인물과 소설의 허구적 인물이 악의 당파로 결속하는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엄송이라는 역사적 간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선감의록〉의 엄세번은 엄송의 아들로 아버지 엄송의 권력을 끼고 사대부가의 아내를 후처로 들이는 악행을 저지른다. 장평과 화춘은 화진과 남채봉에게 저지른 범죄가 탄로날까 두려워 엄송의 아들 엄세번의 힘을 빌리자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처하고 천하미색을 구하는 엄세번에게 화진의 처 윤화옥을 속여 엄세번에게 시집보낼 계락을 만들면서 엄세번과 결탁한다.

『명사』에서 엄세번은 아버지 엄송의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고 태상경에서 상보사까지 역임하며 악행을 저지르며 향락을 즐기고 음란한 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엄송이 나이가 들어 조정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조정의 큰 일은 엄세번이 처리하게 됨으로써 불법의 무리들은 엄세번에게 굽신거리며 뇌물을 바치고 일을 부탁한다. 엄세번은 조문화, 언무경, 호종헌을 휘하에 두고 가는 곳마다 재물을 수레에 채워 돌아오게 하였다. 엄세번은 어머니가 죽자 마땅히 상사를 치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엄승은 자신의 업무를 엄세번에게 시키기 위해 엄세번을 경성에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엄세번은 공문의 부전(附箋)을 쓰지 않고 어머니의 상사 중에도 음란하게 향락을 즐기느라 엄승이 받은 조서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엄세번에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묻게²³⁾ 하였다. 『명사』의 엄세번의 악행과 탐욕, 향락적 생활과 음란함은 〈창선감의록〉에서도 그대로 차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문화도 엄승의 측근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조문화는 엄세번과 함께 『명사』 〈간신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명사』에서 조문화는 성품이 한쪽으로 기울고 좁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조문화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 국학에 있을 때 제주(祭酒)로 있던 엄승이 조문화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조문화와 부자관계를 맺는다. 엄승은 자기의 잘못과 악행이 많을 것을 생각하여 자기 측근을 통정(通政)에 두고 자기를 탄핵하는 상소가 이르면 미리 막기 위해 조문화를 발탁한 것²⁴⁾이다. 〈창선감의록〉의 조문화는 엄승과 부자관계를 맺고 엄승의 권력을 끼고 이미 다른 기문과 정혼한 진형수의 딸 진채경을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인물로 구성하고 있으며 엄승과 함께 악의 당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언무경은 〈창선감의록〉에서 엄승의 세도를 끼고 재물을 탐하고 현인을 음해하면서 어진 선비들과 반목하는 인물이다. 화진과 남채봉을 미워하던 범한과 조너는 엄승의 측근인 언무경의 힘을 빌리기 위해 언무경의 아내에게 뇌물을 받친다. 그러나 언무경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범한은 더 많은

23) 『명사』 권318 열전 제196, 〈엄세번〉 참조.

24) 『명사』 권318 열전 제196, 〈조문화〉 참조.

보물을 언무경의 아내에게 바치고서야 언무경의 마음을 움직이고 언무경이 엄송에게 고하여 엄송이 화진과 남채봉을 제거하는 악인의 연대를 잘 보여준다.

『명사』에서 언무경도 역시 〈간신전〉에 수록되어 있다. 언무경은 엄송이 정권을 잡자 엄송에게 심하게 이부하여 엄송 부자와 친한 사이가 된다. 마침 호부의 양절(兩浙), 양회(兩淮), 장로(長蘆), 하동(河東) 지역의 염정(鹽政)이 잘 행해지지 않자 엄송은 언무경을 발탁하여 그에게 염정 관리를 맡긴다. 언무경은 천하의 이권을 모두 잡고 엄씨 부자에 기대어 소금과는 권리를 소지하게 되니 감사와 균읍 관리가 언무경에게 굽신거리게 된다. 또한 언무경은 매우 사치스러워 뒷간도 장식한 비단으로 싸고 백금으로 변기를 장식했다²⁵⁾고 한다.

이처럼 『명사』에서 엄송은 아들 엄세번과 조문화, 언무경과 같은 악인과 연합하여 무고한 조정 대신과 선인을 조정에서 내쫓거나 죽이는 일을 일삼았다. 〈창선감의록〉은 『명사』의 엄송과 엄세번, 조문화, 언무경과 같은 인물을 차용하고 여기에 더해 가정내 악인인 화춘, 조녀, 범한, 장평과 같은 허구적 인물이 당파를 이루고 엄송이 그 중심에서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로 기능하도록 하여 완벽한 간신과 악인의 전형을 만들었다. 〈창선감의록〉은 역사적 인물 엄송과 그 측근들의 악행은 그대로 모방하고 허구적 인물을 새롭게 구성하여 간신과 악인이 연합하는 서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엄송은 〈사씨남정기〉에서도 악인과 연합하여 악의 당파를 결성하는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로 기능한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엄송과 엄세번, 조문화, 언무경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연대가 두드러졌지만 〈사씨남정기〉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허구적 인물 동청이 엄송에게 뇌물을 바치고 엄송의 권세에 기대어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25) 『명사』 권318 열전 제196, 〈언무경〉 참조.

변형하고 있다.

유연수 집 문객 동청은 유연수의 첩 교씨와 눈이 맞아 사통하고 교씨가 사씨를 내쫓고 유연수의 적처가 되도록 돕고 유연수를 미워하는 엄승과 결탁하여 엄승이 유연수를 제거하도록 한다. 동청은 자신을 엄승의 양자라고 일컫고 엄승의 천거를 받아 진류 현령이 된다. 진류 현령이 된 동청은 백성의 고혈을 짜서 받은 자신이 갖고 받은 엄승에게 보내고 더욱 높은 벼슬을 청탁하여 계림 태수까지 된다.

동청의 이러한 행동은 『명사』에서 엄승의 무리였던 조문화, 언무경이 했던 행동과 매우 비슷하다. 조문화와 언무경은 엄승의 양자(養子), 가자(假子)라고 칭하고 엄승에게 아첨하여 벼슬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뇌물을 엄승과 엄세번에게 바치며 엄승과 엄세번의 충복이 된다. <사씨남정기>의 동청은 바로 『명사』의 조문화와 언무경을 모방하여 구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엄승의 패망과 더불어 동청의 식객이었던 냉진이 등문고를 올려 동청이 저지른 12가지 죄상을 진술하자 천자는 동청을 저지에서 참수하고 가산을 적몰한다. 그런데 동청의 말로는 『명사』의 엄세번의 말로와 매우 유사하게 서술되어 있다.

- ④ 냉진은 동청이 백성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겁박하여 재물을 빼앗고, 도적질을 일삼고, 편당을 모아 변란을 일으킨 등의 열두 가지 죄상을 조목조목 진술하였다. 법관은 그것을 천자에게 올렸다. <중략> 마침내 천자는 동청을 저지에서 참수하고 그 가산은 적몰하게 하였다. 그의 가산은 황금이 삼만 냥이요 백금이 오십만 냥이었다. 주옥과 비단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사씨남정기〉, 146쪽)

『명사』에서 서계와 황광승 등은 엄세번이 나용문 등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세력을 키워 변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후에 일본으로 투항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황제에게 올리자 황제는 엄세번을 참수하게 한다. 『명사』에

서는 “엄세번은 마침내 저자거리에서 침수당하였다. 그 집을 뒤지니 황금이 삼만 여량이었고 백금은 이백만 여량이었으며 진귀한 보석과 노리개의 가치는 수백만 량이었다”²⁶⁾라고 하면서 엄세번의 후일담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사씨남정기>의 동청의 후일담은 『명사』의 엄세번의 후일담을 염두하고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는 엄송의 측근인 역사적 인물은 등장하지 않지만 허구적 인물 동청을 형상화하여 『명사』의 엄송 측근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농축하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악인과 엄송이 연합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일락정기>에서도 엄송을 역사적 인물 언무경과 허구적 인물 조평과 연대하여 악의 당파적 축조자로 구성하고 있다.

엄송의 측근 언무경은 엄송의 명령에 따라 권채운의 숙부 권시랑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포함한다. 엄송과 언무경의 공조로 권시랑은 공금을 횡령한 죄로 감옥에 갇히고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다.

언무경이 『명사』의 역사적 인물이라면 조평은 엄송의 문객으로 허구적 인물이다. <일락정기>에서는 『명사』의 엄세번, 조문회는 등장하지 않지만 허구적 인물 조평이 엄송과 공조한다. 조평은 엄송의 권세를 빌려 서몽상을 관직에서 몰러나게 하고 유배를 가게하며, 권채운에게 음녀와 살인 미수의 범죄를 씌워 죽이려는 악행을 저지른다. 조평은 엄송이 서몽상과 권채운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음모를 만들어 엄송을 만나고 엄송과 조평은 서로의 목표점이 일치함으로써 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일락정기>는 역사적 인물 엄송과 허구적 인물 조평의 연대를 통해 악의 축을 만들고 엄송은 악인의 연대를 만드는 기획자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낙천등운>에서도 『명사』의 인물과 허구적 인물이 엄송을 중심으로 악인의 연대를 구성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명사』의 인물인

26) “遂斬於市。籍其家，黃金可三萬餘兩，白金二百萬餘兩，他珍寶服玩所值又數百萬。”(『명사』 권318 열전 제196, <엄세번>)

엄세번, 언무경, 호종헌, 나용문, 엄홍, 엄곡, 만채, 방상 등이 〈낙천등운〉에 등장하고 이들은 엄송의 지시에 따라 왕석작과 동예아의 고난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낙천등운〉에서는 『명사』 인물들의 악행은 구체적이지 않고 엄송이 악행을 저지를 때 이름만 호명되고 악행은 엄송이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낙천등운〉에서는 허구적 인물인 후선, 초정, 동전체가 엄송과 연대하여 왕석작과 동예아의 고난을 가하고 악의 당파를 이루게 된다. 〈낙천등운〉에서도 엄송은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로 악인의 연대를 만들고 그 무리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3) 엄송에서 촉발되는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의 구성 양상

고전소설에서 엄송의 소설화와 관련해서 사건 구성의 측면에서 포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엄송의 고난에서 촉발되는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이다. 〈창선감의록〉, 〈일락정기〉, 〈낙천등운〉에서는 엄송이 가치는 고난을 피해 길을 떠나는 남녀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서사가 창안되고 있다.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은 앞에서 살펴본 엄송의 인물 구성과 다른 사건 구성의 소설화 양상이다.

먼저 〈창선감의록〉에서 진채경과 윤여옥이 만드는 새로운 인연담이 대표적이다. 조문화는 진형수의 딸 진채경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키려는 뜻을 진형수에게 전했다가 거절당하자 엄송에게 사주하여 진형수에게 누명을 씌워 금위옥에 가둔다. 진채경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조문화에게 혼인을 허락하는 척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탈출하게 된다. 진채경은 백련교에서 선비 백경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을 정혼자 윤여옥이라고 속이고 백경의 여동생과 혼인을 약속한다. 엄송의 권세가 약해지고 진형수가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윤여옥과 진채경, 백소저는 한날 한시에 혼인함으로써 진채경이 기획한 윤여옥과 백소저의 인

연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엄승의 측근 조문화의 악행에 의해 비롯되는 진채경의 고난담은 윤여옥과 백소저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사건으로 구성되고 <창선감의록>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된다.

엄승과 그 측근들의 악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인연을 새롭게 만드는 구성은 윤희옥의 고난담에서도 발견된다. 장평과 회춘이 공모하여 윤희옥을 엄세번의 후처로 보내는 계락을 세우자 윤희옥을 만나러 왔던 쌍둥이 남동생 윤여옥은 누이를 대신해 여자의 복장으로 엄세번의 집으로 들어간다. 엄세번은 누이 동생 월화를 시켜 윤희옥으로 변장한 윤여옥과 함께 취침하도록 한다. 윤여옥은 여자인 척하며 월화와 동침하다가 탈출 전 자신의 정체를 월화에게 밝힌다. 월화는 윤여옥이 엄부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윤여옥은 월화와의 인연을 약속하고 엄부를 빠져나간다. 시간이 흐른 후 엄승이 패망하고 윤혁, 남표가 모여 있는 곳에 우연히 엄승이 나타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자신의 딸 월화와 윤여옥의 혼인을 부탁한다. 윤혁은 월화를 윤여옥의 첩으로 받아들여주고 윤여옥과 월화가 인연을 맺도록 한다. 엄세번의 악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남녀의 인연을 만드는 이와 같은 서사 구성은 『명사』의 엄승의 역사를 매개로 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서사 구성을 창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락정기>에서도 이러한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이 구성된다. 엄승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던 권채운이 서몽상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삼화가 구성되어 있다. 엄승이 권시랑을 감옥에 가두고 권채운과 자기 아들의 혼인을 강요하자 권채운은 거짓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척하고 집을 빠져나온다. 권채운은 운모역 쌍백촌에서 호원공주 맥 유모를 만나게 되는데 유모는 권채운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자기 맥 아가씨인 정소저와의 혼인을 주선하고 권채운과 정소저는 혼인하게 된다.

특히 <일락정기>에는 권채운이 서몽상인 것처럼 변복하고 정소저와 혼인하여 신혼밤을 보내는 장면이 자세히 나온다. 권채운은 밤마다 책을 읽다

가 정소저와 함께 동침하지만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지는 않는다. 이렇게 3일간을 보내다가 정소저의 어머니 호원공주가 결혼한 정소저의 팔뚝에 앵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 연유를 묻게 되고 정소저는 남북한 권채운에게 자신을 가까이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권채운은 자신의 정체와 변복한 이유를 말하고 정소저 같은 숙녀를 정혼자 서공자에게 천거하여 신의를 어긴 잘못을 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호원공주는 권채운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권채운을 양녀로 삼아 엄송의 화를 모면하게 해준다.

이처럼 〈일락정기〉의 권채운이 엄송의 화를 피해 변복하여 자신의 정혼자 서몽상의 새로운 인연을 매개하는 구성은 〈창선감의록〉의 진채경의 경우보다 훨씬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다. 〈창선감의록〉의 진채경의 인연담은 정혼자 윤여옥을 위해 백소저를 매개하여 백경과의 정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일락정기〉의 경우는 남북한 권채운이 정소저와 혼인하여 신혼밤을 보내는 것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정소저의 처소인 의향각의 신혼방도 남녀 이성지합을 예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한 권채운이 정소저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권채운은 정소저와 동침은 하지 않으면서도 3일 동안을 남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소저와 부부 생활을 해나간다. 〈일락정기〉는 〈창선감의록〉의 모방에서 한걸음 나아가 변복한 여성이 혼인을 하고 같은 여성과 부부가 되어 신혼 밤을 보내는 새로운 삽화를 만들어 독자의 흥미를 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낙천등운〉에도 〈창선감의록〉과 〈일락정기〉에서처럼 동예아가 엄송의 미수를 피해 남북하고 길을 떠나면서 남녀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구성이 드러난다.

엄송의 화를 피해 왕석작과 동예아, 시녀 화연까지 남북하여 함께 길을 떠나면서 갖은 고생을 하다 정허관이란 비구니 절에 머칠을 머문다. 비구니들은 자기의 연정을 거부한 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도둑 누명을 씌우고 이들을 관가에 고발한다. 관의 지현 왕치는 왕석작의 풍모와 사람됨을 보고

는 왕석작의 무죄를 밝혀낸다. 왕지현은 왕석작의 외사촌 동생이라고 속인 남북한 동예이를 마음에 두고 자신의 딸 왕소저와 혼인시키고자 한다. 동예이는 동생 동준을 대신해서 자신이 혼인하고 나중에 사실을 밝히자고 하고 왕지현의 딸 왕소저와 혼인한다. 이처럼 〈낙천등운〉의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은 여성 주인공 동예이가 남편을 위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으로 변형하고 있다.

왕소저와 혼인한 동예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실제 부부인 것처럼 행동한다. 동예이는 왕소저의 어머니 추부인이 방 밖에서 엿보는 것을 눈치 채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부부가 원만하다는 것을 과장하고 추부인은 이에 속아 딸과 사위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동예아와 왕소저는 동침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부부처럼 사이가 좋고 정이 날로 깊어간다. 왕석작은 동예아가 왕소저와 지내면서 자신을 보러 나오지 않자 이를 은근히 질투하며 동예아와 왕소저의 처소로 찾아가 동예아를 만나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왕석작과 동예이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만나고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예아가 왕소저와 혼인하고 가짜 부부로 지내는 생활과 왕석작과 동예아가 남의 눈을 피해 실제 부부로 지내는 이중 생활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스토리를 구성하여 남녀의 연애 상황을 만들어 독자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다.

〈낙천등운〉의 동예아와 왕소저의 새로운 인연담은 〈창선감의록〉 등에서 영향을 받은 단위담이지만 〈창선감의록〉보다 훨씬 남녀의 만남과 연정 등을 확장하는 서사로 구성하고 있다. 〈낙천등운〉에서는 동예아가 왕소저와 혼인하고 가짜 부부 생활과 진짜 부부 생활을 하는 이중적인 남녀의 인연담을 만듦으로써 남녀의 연정과 연애의 판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보다 적극적인 서사 창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고전소설의 엄승의 소설화 양상의 의미

1) 총체적 간신형 인물의 모방

앞장에서 우리는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에서 『명사』의 엄승을 모방하여 엄승이 충신과 갈등하고 충신의 자녀에게도 고난을 가하는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로 구성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은 가정내 악인이 남녀 주인공에게 고통을 주고 보다 강력한 고난을 만드는 서사를 구성해나간다. 가정내 악인이 남녀 주인공에게 가하는 고난도 가볍지 않지만 소설의 흥미를 위해서는 고난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모티브가 필요하게 된다.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에게 강력한 고난을 가할 수 있는 외부적 힘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악인을 적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사상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충신을 해친 엄승과 같은 인물은 주인공에게 강력한 고난을 가하는 전형적 인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명사』에서 엄승의 악행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엄승은 도교에 빠진 세종에게 아부하여 20년간 국가 권력을 대신 맡아서 휘두른다. 세종의 분노를 이용해 엄승은 많은 사건을 만들어 자신과 대립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 『명사』에 따르면 엄승은 장경, 이천룡, 왕여의 죽음을 만들었으며 자신과 엄세번을 탄핵했던 사유, 섭경, 동한신, 조금, 왕종무, 하유백, 왕엽, 진개, 여여진, 심련, 서학시, 양계성, 주부, 오시래, 장충, 동전책 등을 조정에서 모두 파직시키거나 유배보냈다. 섭경, 심련, 양계성은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²⁷⁾ 또한 아들 엄세번과 조문화, 언무경, 호종현, 만채, 방상, 오봉, 구양팔진, 고요, 허론 등이 엄승의

27) 『명사』 권318 열전 제196 〈엄승〉.

권력에 의지하여 엄송을 섬기며 요지에 앉아 비리를 저지른다.²⁸⁾

엄송은 이처럼 『명사』에서 대표적 간신이자 악인으로 서술되고 조선에서도 명사류 사서와 『명사』를 통해 엄송의 간신의 면모는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명나라에 사신을 갔다 온 조선 사신단이 엄송의 악행을 상세하게 전하는 부분²⁹⁾도 있으며, 조정에서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엄송과 그 측근의 행적이 언급³⁰⁾되기도 한다. 또한 임금과 신하의 소대(召對)에서도 『명사』에서 발췌된 엄송의 악행이 자주 언급³¹⁾되고 있으며, 사대부의 문집류에서도 엄송에 대한 비판³²⁾이 자주 등장한다. 고전소설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충신의 가문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간신으로 엄송을 반복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엄송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역사적 인물 엄송의 행적은 역사를 유사하게 모방하여 소설적 사건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역사적 질료가 되기 때문에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은 역사를 모방하는 역사 유사화의 방식으로 총체적 간신형 인물 엄송을 만들었다. 고전소설의 작가는 세종에게 이부하여 권력을 얻고 자기 뜻에 부합하는 이들을 모아 당파를 만들어

28) 『명사』 권318 열전 제196 <엄송>.

29) 장훈(2010), 앞의 논문, 27~29쪽.

30)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4월 12일, 5월 6일의 기록과 『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 1월 15일,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0월 27일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www.history.go.kr>.

31) 『승정원일기』, 영조 3년 정미 7월 7일, 7월 13일, 8월 1일, 영조 4년 무신 6월 20일, 영조 9년 계축 12월 16일의 기록과 『일성록』, 정조 7년 계묘 1월 15일, 정조 10년 병오 10월 27일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32) 기대승, 「논사록」하권, 『고봉전서』, 이항복, 「백사별집」2권, 『백사집』, 허봉, 『조천기』상,중,하, 이덕무, 『청장관전서』 61권, 남구만, 『약천집』 14권, 황경원, 『강한집』 8권, 이익, 『성호사설』 5권, 이익현, 『도곡집』 28권 등의 문집류가 대표적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충신과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명사』의 인물 엄승에서 간신의 전형을 포착하고 이것을 모방하여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로서의 소설의 인물 엄승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고전소설의 반동 인물은 악인이면서 간신인 경우가 많고 소설 속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엄승도 그런 반동 인물의 구도 속에 있다. 그러나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에서 『명사』의 엄승을 모방하여 총체적 간신형 인물을 구성하는 이유는 엄승의 역사가 충신과 간신의 갈등과 함께 첩과 처의 갈등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서사 프레임을 가진 역사이기 때문이다. 엄승의 역사는 간신이 우위에서 간계로 충신을 축출하고 제거하는 서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가정내 서사에서도 첩이 우위에서 간계로 처를 축출하고 제거하는 구성을 유사하게 그려낼 수 있는 촉발제가 된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에서 선호되는 것이다. 『명사』의 엄승의 역사는 인물의 모방뿐만 아니라 충신과 간신, 처와 첩의 갈등 구성의 뼈대를 만드는 데 참조 텍스트가 되고 고전소설은 엄승의 역사를 참조하고 모방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소설화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역사적 인물과 서사 구성을 모방하는 역사 유사화는 창작자와 독자에게 이미 잘 알려진 엄승의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과 해석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된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역사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명사』의 인물을 차용하여 인물 구성과 서사 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명사』의 인물 엄승이 지닌 간신과 악인으로서의 행적은 작가가 어렵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명사』의 인물 엄승을 모방하여 완벽하고 총체적인 간신의 모습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엄승의 역사는 간신과 충신의 갈등에서 첩과 처의 갈등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서사적 틀이 되는 것이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역사 유사화 방식으로 인물을 구성한 소설을 읽으면서 역사 속 엄승과 소설 속 엄승을 동일시하고 역사에서 얻은 엄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소설

속에 투사하여 적대적 감정으로 엄송을 바라보고, 처첩의 갈등도 이와 유사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의 서사적 몰입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엄송은 작가의 창작과 독자의 해석의 수월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엄송은 허구적 인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2) 선악의 대칭적 긴장의 서사 변형

우리는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일락정기>, <낙천등운>에서 엄송이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로 기능하며 엄송을 중심으로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이 연대하여 강력한 힘을 만들어 주인공과 대립하는 서사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엄송뿐만 아니라 『명사』의 엄세번, 조문화, 언무경을 모방하였고, 허구적 인물 장평과 범한이 가세하여 화진, 남채봉, 윤화옥에게 고난을 주는 서사를 만들었다. <사씨남정기>에서는 『명사』의 인물은 나타나지 않지만 『명사』의 엄세번, 조문화의 자질과 형상을 모방한 허구적 인물 동청을 구성하였다. <일락정기>에서는 『명사』의 언무경과 허구적 인물인 조평이 엄송과 연합하였으며, <낙천등운>에서는 『명사』의 엄세번, 언무경, 호종헌 등이 모방되고 다수의 허구적 인물이 엄송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악의 축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고전소설에서 엄송과 그 측근들과 허구적 인물이 연합하여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서사 구성뿐만 아니라 선인들의 연대도 활발하게 드러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선감의록>에서는 허구적 인물 화진과 『명사』의 인물 서계, 척계광, 임윤 등이 서로 도우며 엄송의 무리와 맞서게 된다. <사씨남정기>에서는 허구적 인물 유연수와 『명사』의 인물 해서, 서계가 선인들의 연대를 보여준다면, <낙천등운>에서는 허구적 인물 왕석작과 『명사』의 인물인 양계성, 동천책, 추용룡, 임윤,

해서 등을 친인척, 사제지간, 동료로 설정하여 엄송의 무리들에게 맞서는 구성을 보여준다.

주인공과 연대하는 역사적 인물은 선인이며 이들은 충신으로 설정되고, 엄송과 연대하는 역사적 인물은 악인이며 이들은 간신으로 이분화된다. 엄송과 그 무리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고난을 가할 때마다 주인공과 선인들도 이에 맞서 활발하게 결속하여 고난의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주인공이 엄송에게 고난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상소를 올리거나 목숨을 구해주고,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주인공이 나서서 도움을 주는 시인과 보은의 서사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선인과 충신은 의로움과 정도를 추구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악인과 맞서는 하나의 힘이 된다. 결국 엄송과 악인의 연대와 주인공과 선인의 연대는 고전소설에서 선악의 힘이 대칭적으로 유지되어 긴장의 서사를 추동해가는 서사 구성 방법이 되는 것이다.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엄송과 악인들의 연대와 주인공과 선인들의 연대는 『명사』와 비교해보면 고전소설의 독특성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고전소설에서 선인이나 충신으로 형상화된 인물들은 『명사』에서도 현명한 관리이거나 충신이며 직간신의 자질을 가졌다. 그러나 『명사』에서는 충신이나 직간신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공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명사』에서는 엄송과 엄세번, 조문화, 언무경, 호종헌 등이 엄송과 당을 만들어 엄송에 반대하는 사람과 충신을 제거하기 위해 활발한 공조 양상을 보여주고 충신들은 이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조정에서 축출되거나 죽음을 맞는다. 『명사』 엄송의 역사에서는 엄송의 비리를 말하고 탄핵하는 충신들은 엄송과 엄송의 무리에 의해 응징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과 『명사』에서 모방된 역사적 인물은 의로움과 정도를 내세우며 결속하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다. 『명사』의 역사적 사실과 달리 고전소설에서 충신과 직간신은 서로 연대하여 엄송의 무리와 맞서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전소설에서 충신과 직간신이 활발하게 연대하는 이유는 고전소설의 서사가 악의 축으로 기울지 않고 선악의 힘이 대칭되는 긴장의 서사를 구성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명사』에서는 악인과 간신의 힘이 강해 선인과 충신이 제거되고 간신과 악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고전소설에서는 선인과 충신의 연대로 악인과 간신의 힘에 맞서는 방어막을 만들어 선과 악이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는 서사를 만드는 것이다. 고전소설은 『명사』의 충신과 간신의 자질은 모방하되 이들의 활약은 변형하여 선과 악이 병립하도록 변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변형에는 간신과 악인의 공조로 충신과 직간신이 제거되는 역사와 달리 선인과 충신은 인간이 돕고 하늘이 도와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세계를 재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가 있다. 고전소설의 작가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 역사를 다시 쓰기하여, 있어야만 하는 현실로 변형하여 고전소설 향유층이 바라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 향유층이 가지고 있는 선과 천도(天道)에 대한 믿음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소설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애에 대한 상상적 서사 창안

마지막으로 <창선감의록>, <일락정기>, <낙천등운>에는 엄송에서 촉발되는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이란 여성이나 주변 인물이 엄송과 엄송 측근의 고난을 피해 도망가거나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변복하여 정혼자나 아우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엄송과 엄송의 측근이 가하는 고난에서 파생되는 삽화로 역사 모방과 거리가 있는 새로운 소설적 서사 구성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창선감의록>, <일락정기>, <낙천등운>에는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 구성이 소설적 재미를 만드는 흥미소로 들어가 있다. <창선감의록>에

서는 진채경이 남북해 정혼자 윤여옥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윤여옥은 여복하여 월화와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 <일락정기>에서는 남북한 권채운이 정소저와 혼인하여 신혼 밤을 보내고 <낙천등운>에서는 동예아가 남북하여 왕소저와 혼인하여 부부 생활을 한다. 특히 <낙천등운>은 <창선감의록>과 <일락정기>보다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 구성을 전폭적으로 변형하여 풍부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 작품에서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의 구성은 남녀의 연애에 대한 호기심과 남녀간의 연정을 펼쳐보고 싶은 욕망을 상상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창선감의록>의 윤여옥이 여장을 하고 월화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인연을 맺고 훗날을 기약하고, <일락정기>의 권채운이 남장하여 정소저와 혼인하고 몇날 밤을 함께 보내며 부부의 정을 나누며, <낙천등운>의 동예아가 남장하여 왕소저와 혼인하여 여러 달을 함께 보내며 부부애를 나누는 설정은 남녀의 연애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을 소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창선감의록>의 윤여옥은 진채경과 가문끼리 정혼한 사이이고, <일락정기>의 권채운도 서몽상과 가문끼리 정혼한 사이이며, <낙천등운>의 동예아는 이미 왕석작과 혼인한 사이이다. 이들은 이미 가문끼리 정혼하여 곧 부부가 될 사이이거나 숙부가 맺어준 인연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일반화된 혼인은 부모가 개입하여 집안과 집안이 맺어준 남녀가 이에 순응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윤여옥과 진채경, 권채운과 서몽상, 동예아와 왕석작은 부모와 숙부가 맺어진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혼인을 하고 이 부부 관계에는 남녀의 연애가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혼인에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연정을 느끼고 연애를 하는 과정은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선감의록>, <일락정기>, <낙천등운>의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의 구성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남녀의 연애를 상상적으로 실현시키는 소설

적 시도이다. 여성이 변복하여 남성이 되고, 남성이 여성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연인을 탐색하고 연정을 나누면서 연애하는 경험을 소설적 상상으로 펼쳐보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애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 내재해 있고 연애에 대한 낭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소설을 통해 연애를 경험해보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러한 소설적 구성을 창안하게 하는 것이다. 고전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의 구성은 『명사』의 엄승과 엄승의 측근이 주인공과 주변 인물에게 고난을 가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지만 『명사』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의 모방과는 관련 없는 완전히 허구적 구성이자 새로운 소설적 창안이다.

〈창선감의록〉에서부터 시작되는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의 구성은 〈일락정기〉와 〈낙천등운〉과 같은 후대 소설에 이르러서 더욱 정교하게 허구화되어 하나의 독자적 단위담이 된다. 후대 소설로 갈수록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의 구성은 보다 흥미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이것은 연애에 대한 낭만적 인식이 개입되어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연애를 상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허구적 상상력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만든 소설적 창안이다. 이를 통해 자칫 역사를 소설화하는 소설이 지닐 수 있는 스테레오 타입의 서사를 생동감 있게 변화시키고 소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엄승이 고전소설의 주요한 인물로 기능하는 고전소설에 주목하여 인물 구성과 사건 구성의 측면에서 엄승의 역사를 모방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창안을 하는 구체적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고전소설은 인물 구성의 측면에서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로 명사의 업승을 모방하거나 변형하였다. 갈등의 복합적 유발자란 업승이 충신인 남녀 주인공의 아버지와 갈등하고, 남녀 주인공과 갈등하는 전방위적인 갈등 유발자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사』의 업승의 자질을 그대로 모방한 역사 유사화의 방법인데 이를 통해 고전소설은 『명사』의 업승의 자질을 모방하여 총체적인 간신의 모습과 충신과 간신의 갈등, 처첩의 갈등 구성도 손쉽게 만들게 된다. 또한 역사 유사화는 작가가 창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독자가 서사적 몰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악인의 연합적 축조자란 업승이 악인을 결집하고 연합하는 인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소설은 업승을 중심으로 명사의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악인들이 연합하는 서사와 함께 주인공을 중심으로 명사의 역사적 인물이 연합하는 서사도 함께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선악의 힘이 대칭을 이루어 긴장의 서사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명사를 모방하면 서도 한편으로 변형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건 구성의 측면에서는 여성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업승과 업승의 측근이 가하는 고난을 피해 길을 떠나면서 남녀의 새로운 인연담을 구성하여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연애를 상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소설적 상상력이 가장 많이 발휘된 것으로 고전소설의 새로운 사건의 창안이다.

이처럼 업승의 역사는 모방을 통해 간신과 충신의 갈등과 처첩의 갈등을 기획할 수 있고, 일정 정도의 소설적 변형을 통해 향유층이 바라는 당위적 현실을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소설적 창안을 통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세계를 상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인 소설 창작의 동기소가 되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소설화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이래중 역주, 『창선감의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1~455쪽.
- 이래중 옮김, 『사씨남정기』, 태학사, 2004, 1~180쪽.
- 김기동 편, 〈일락정기〉, 『필사본 고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80, 1~228쪽.
- 임치균, 이민희, 이지영 옮김, 『낙천등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1~529쪽.
- 『명사기사본말』, 국립중앙도서관본 古2255-23-72.
- 『황명통기집요』, 국립중앙도서관본 古2255-5.
- 『명기편년』, 국립중앙도서관본 한古朝 50-11.
- 구희경, 「낙천등운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1, 1~32쪽.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1~584쪽.
- 김대경, 「조선후기 『皇明通紀輯要』의 간행과 유통」,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8, 1~68쪽.
- 문선규, 「창선감의록고」, 『어문학』 9, 한국어문학회, 1963, 1~22쪽.
- 신동익, 「일락정기 연구 -선행 작품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3, 269~294쪽.
- 이승복, 「〈일락정기〉의 전대소설 수용과 작자의식」, 『관악어문연구』 2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8, 69~91쪽.
- 이지영, 「〈낙천등운〉의 텍스트 특징과 형성 배경에 대한 고찰」,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59~87쪽.
- 임치균,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010, 87~101쪽.
- 장원연, 「조선후기 금속활자인쇄 교정의 실증적 연구- 戊申字本 『명기편년』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4, 한국서지학회, 2018, 239~259쪽.
- 장흔,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 실존 인물 연구-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0, 1~85쪽.
- 조희웅,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257~273쪽.
- 탁원경, 「일락정기 연구- 구성방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6, 1~110쪽.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명사」, 『漢籍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sinica.edu.tw/ihpc/hanjiquery>.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www.history.go.kr>.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국어국문학자료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

ABSTRACT

The aspect and meaning of novelization of Umsung in classical novels

Kim, Mun-hee

This study discusses aspect and meaning of novelization of Umsung, a historical figure that appears repeatedly in classical novels such as *Changsungamuerok*, *Sassinamjunggi*, *Ilrakjunggi*, *Nakcheondeungun* paying attention to Umsung in Ming history. Private historical books such as *Myeongsagisabonmal*, *Hwangmyeongtonggijipyo*, *Myeonggipyunyeon* were being imported and read in Chosun before the official *Myeongsa* which was published in Qing dynasty. Umsung, a figure in Ming history could be reorganized as a figure in classical novels because various historical books starting with *Myeongsa* were being circulated and enjoyed in this way. Umsung in classical novels constitutes a figure who has functions of complex inducer of discord and associative builder of evildoer in common. The complex inducer of discord means that Umsung functions as omnidirectional discord inducer who conflicts with royalistic father of male and female main characters and main characters as well. It is similarization of history to imitate the qualification of Umsung in *Myeongsa* as it is. Classical novels are easily able to build integral appearance of disloyal subjects by imitating qualification of Umsung through the similarization of history. The associative builder of evildoer means that Umsung functions as a figure who concentrates and associates evildoers. Classical novels build a narrative where a historical figure in Ming history and fictional evildoers associate centering around Umsung and constitutes a narrative where a historical figure in Ming history associates centering a main character on the one hand. Lastly, classical novels also show originalities where female main characters or surrounding people constitute new stories of friendship while making a journey to escape from adversities of Umsung. It achieves novelistic originalities with romantic awareness about love and fictional imagi-

nation actively involved by actualizing unrealizable love imaginatively.

Key Words *Changsungamuerok, Sassinamjunggi, Ilrakjunggi, Nakcheondeungun,*
Umsung, Novelization, Imitation of Ming history, Modification of Ming
history, Novelistic originality

| | |
|-------|--------------|
| 논문투고일 | : 2021.04.15 |
| 심사완료일 | : 2021.05.02 |
| 게재확정일 | : 2021.05.10 |